

농촌1차보건의료사업 연구 보고서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실태 분석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pp. 127~156, 1985. 5.

장 지 섭

일차보건·의료사업이란 사회개발의 한 부분이며 모든 사람이 적정수준이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일차보건·의료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의 건강은 주민 각자의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책임이라는 연대의식속에 주민 스스로의 관리하에 해결해 나가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이와같은 개념에 입각하여 주민에 의해 조직된 것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며 운영협의회는 곧 지역사회 조직으로 일차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운영협의회의 활동여부는 곧 지역사회 참여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사업초기에 흔히 볼 수 있듯이 운영협의회의 활동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일차보건의료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일반목적이 있다.

1983년 11월22일(1일간) 각 도별로 실시한 일차보건의료에 관한 교육에 참석한 1,238개소의 운영협의회장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후에 사전에 준비된 설문지에 의해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에 의해 전산처리되었으며 분석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 운영협의회 운영,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보건진료원과 마을건강원의 활동등을 항목별 내용에 따라 백분을 평균치로 협의회 조직연도별로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운영협의회의 운영은 14인 이내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회장, 부회장 각1인 포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법에 근거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업무는 보건진료소 운영의 지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와 건수로 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조직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준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